

2024 여름 제37호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세계로
결대로
올바로

등교부터 즐거운 학교

인천학생성공버스



도심 속 공유형 친환경 통학버스 “인천학생성공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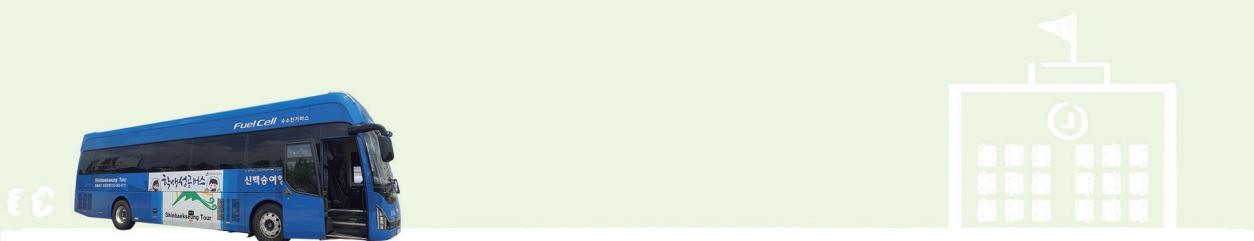
정지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주무관

인천학생성공버스는 교육청 주관의 안정적인 통학 여건 제공으로 원거리, 교통수단 부재 등 지리적으로 불리한 통학여건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인 학생들의 학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교육권 보장 및 통학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전차량 친환경 버스 26대로 시작하여 2024년에는 45대로 확대·시행하면서 통학여건 개선 뿐 아니라,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량 “0”인 수소버스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버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생태환경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생성공버스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업으로 현행 법령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교육청 주관 공유형 통학버스를 규제특례를 받아 통학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등굣길을 위해 운영중입니다.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기대에 대응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춘 신개념 통학서비스로 힘든 등굣길에서 “등교부터 즐거운 학교”로의 변화에 첫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학생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2024 여름

제37호

발행일 2024년 6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편집인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기획 및 편집 길기호, 여준희

사진 변상호, 이주한, 박정운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표지사진 인천학생성공버스

홈페이지 www.ice.go.kr

디자인·인쇄 송도국제디자인(T.032-888-3148)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 2024-0143

제호 서체작가 꽃비 고천성

전화 032-320-0082

🔔 특집

- 04 어린이의 동심이 동시에
- 08 오늘은 어린이가 주인공, 맘껏 놀아요
- 12 신설학교 공간혁신 이야기

▶ 캠페인

- 14 읽걷쓰 시즌2
- 18 2024년 읽걷쓰 출판기념회
- 20 인천시교육청 홍보대사를 소개합니다

☰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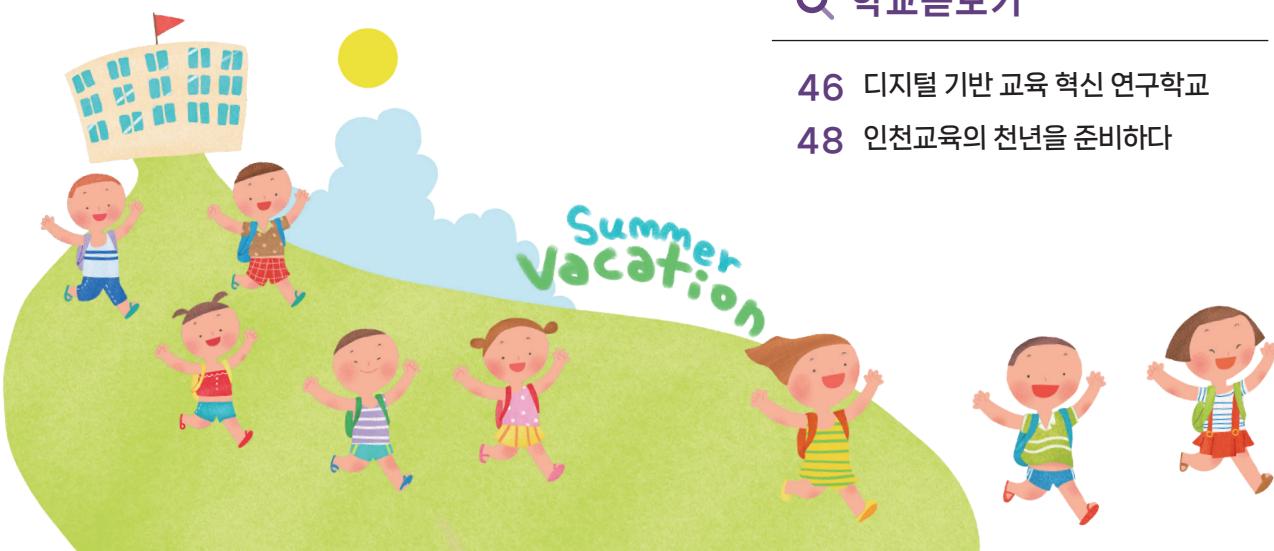
- 22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을 소개해요
- 26 우주, 그리고 미래를 담다!
- 28 진로·진학·직업로드맵

❤ 공감

- 40 대전환 시대, 인천교육의 방향
- 42 학교가 만들어가는 교육의 미래

🔍 학교돋보기

- 46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연구학교
- 48 인천교육의 천년을 준비하다



특집



제102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개최한 「전국 동시 쓰기 공모전」에 접수된 동시 작품 수는 국내 5,718 편, 국외 736편, 무려 총 6,454편이었다. 단순하게 숫자로 표현된 행사의 정량적인 '실적'일 수도 있지만, 이는 이곳에 모인 어린이의 '마음'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6,000명이 넘는 어린이의 마음이 '동시'라는 형태로 표현되었다.

심사 결과, 경기도 예당초등학교 4학년 박선우 학생이 '꼬마 돌멩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인천, 울산, 경기, 충남, 경북 등 국내 지역과 대련·상해·선양(중국), 도쿄(일본), 모스크바(러시아), 호치민(베트남), 마닐라(필리핀), 프놈펜(캄보디아) 등 국외 지역 학생, 총 48명이 올바로상, 결대로상, 세계로상, 미래로상을 수상하였다.

심사위원들은 6,000편이 넘는 동시 작품을 심사하면서도 하나 같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맑고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을 읽는 시간이 어른들에게 '힐링'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쪽의 어린이들이 쓴 동시를 읽어본다면 이 마음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박상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사

추후 입상 작품을 전자책으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이 중 우수작은 작곡·편곡·녹음 지원을 통해 동요로 만들고 영상으로 제작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널리 알릴 예정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 '10년 후의 우리나라를 생각하라.'며 어린 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린이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 「전국 동시 쓰기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의 마음을 좀 더 공감하고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한다.



대상

꼬마 돌멩이

놀이터 구석
푸른 소나무 그늘 아래
오래 전부터 흘로 앉아 있는 꼬마 돌멩이

작년에 전학와서
친구없이 흘로 그네 타는 내 모습을
오랜 시간 몰래 몰래 지켜 보았겠지?

하지만
흘로 있는 꼬마 돌멩이도
한때는 곤충들의 정류장이 되어 무척 바빴을거야.

개미는 돌 밑틈 사이로 집을 짓느라,
메뚜기는 멀리 뛰기 연습하느라,
쥐며느리는 돌틈 사이에 가족들 불러
옹기종기 모여 잔치 여느라,
느림보 달팽이는 돌 넘는데 한 세월 걸렸을테고,

앗, 가만 가만 들여다보니
흔자가 아니네.

지나가는 참새 한 마리
꼬마 돌멩이 위에 살포시 앉아
"찍찍 짹짜" 이야기 나누고
포르르 날아가네.

내게도
곧 참새처럼 다정한 친구가 생길거야.

전학오기 전
내 곁에서 즐겁게 웃어주던 내 친구 준서처럼
내가 하는 말에 까르르 까르르
웃어주는 멋진 친구가 곧...

「꼬마 돌멩이」
경기 예당초등학교 4학년
박선우

작품 설명

저는 작년에 수원에서 화성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귀기를 힘들어하는 성격이라, 전학 온지 한 학기가 되어 가지만 아직 친한 친구가 없어 늘 외로워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돋보기로 곤충을 관찰하다가 우연히 소나무 아래 외롭게 있는 꼬마 돌멩이가 보였습니다. 혼자 노는 저랑 닮아서 외로워 보여 같이 놀려고 다가갔는데, 그때 참새가 돌멩이 위에 살짝 앉았다가 날아갔습니다.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 친했던 준서가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집**올바로상****응! 원해요**

엄마, 나는 커서 요리사가 될래요.

음...

엄마 머리가 갸우뚱해요

아빠, 나는 커서 축구선수가 될래요.

음?

아빠 눈이 동그래졌어요.

엄마, 아빠, 나는 꿈이 많아요.

응! 하고 귀담아 들어주고 응원해 준다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응! 원해요」

인천용학초등학교 2학년

김종현

작품 설명

엄마, 아빠가 제 꿈을 응원해 줬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올바로상****집나온 뚝배기**

하고길에 이가 빠진 뚝배기가
길가에 놓여있었다
된장찌개와 계란찜과 가족들의
웃음을 담던 따뜻한 그릇이었을 텐데
이젠 텅 빈 그릇이다

날마다 혼자 무얼하며 지낼까
비가 오면 노란 비옷을 입은 아이들과
첨벙첨벙 물장난이라도 할까?
봄햇살이 따사로운 날은
기지개를 펴는 새싹들과
오순도순 재밌는 이야기를 할까?
바람이 쌩쌩 부는 날은
새들과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신나는 상상도 할까?

나도 가끔은 버려진 뚝배기처럼
혼자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땐 뚝배기처럼
넓은 하늘도 마음에 담고
따뜻한 봄비도 촉촉하게 담아서
모든 사람을 보듬어주는
넉넉한 그릇이 되고 싶다

「집나온 뚝배기」

인천해든초등학교 5학년

최서윤

작품 설명

평소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주제를 고민하다 사진첩에서
길가에 버려진 뚝배기 사진을 보고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에
선택하게 되었다.





추억의 힘

어릴 적 내 모습이 담긴
나의 소중한 앨범
나는 힘들 때마다 추억을 꺼내 본다

한여름 호수공원 분수대에서
팬티바람으로 엉덩이를 쭉 내민
신나는 여섯 살의 내 모습
엄마 잔소리 폭탄으로 눈물 날 때 꺼내 보면
미소가 스르르, 화가 풀린다

처음으로 잠바 지퍼를 혼자 잠근
사진 속 네 살의 내 모습
수학 문제가 너무 안 풀릴 때 꺼내 보면
그래, 난 할 수 있다!
의욕에 불타 오른다

백일, 200일, 돌, 유치원 생일 파티
특별한 날에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면
시험을 망쳐도, 우리 팀이 운동회에서 져도
괜찮아, 다음에 잘 하면 되지...
위로가 된다

심심할 때, 속상할 때, 화날 때
게임이 참겨서 할 게 없을 때
내 앨범을 꺼내 보면
나는 행복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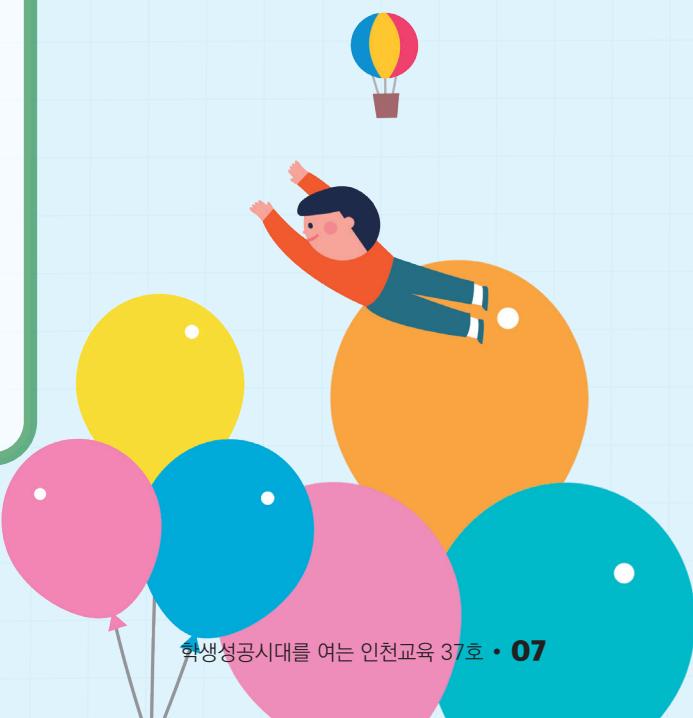
미래의 나도
지금처럼 생각하면 좋겠다

「추억의 힘」

인천가정초등학교 6학년
김희준

작품 설명

내가 힘든 마음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특집



박상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학사



2024년 5월 4일 토요일, 어린이의 마음처럼 맑고 푸른 하늘 아래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에서 「제1회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가 열렸다. 제102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오늘은 어린이가 주인공, 맘껏 놀아요. 준비~땅!’이라는 비전과 함께 열린 신나는 축제 현장으로 떠나보자.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기념식 현장인 예지관에는 놀이 축제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이곳에는 「전국 동시 쓰기 공모전」 입상작 29편과 「제1회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 포스터 공모전」 입상작 13편을 전시하여 어린이들의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작은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기념식 사전 공연으로 ‘읽건쓰 동요’ 합창(한빛유치원 외 유아 56명), 2023년 동시 쓰기 공모전 우수작인 ‘사계절 우리들’(인천경명초등학교 김채윤, 조수아), 홍보대사인 파스텔걸스의 축하공연이 이어

졌다. 어린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로 기념식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기념사를 통해 어린이날과 어린이 해방 선언의 중요성, 전국 동시 쓰기 공모전과 인천 어린이청소년 영화제의 성과를 이어 앞으로도 어린이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경인교대 김창원 총장 및 국회의원 이재명, 유동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날을 축하하며 어린이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 것을 희망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경인교대총장 모범 어린이 표창과 「전국 동시 쓰기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이동이 불편한 특수학교 어린이 표창 시, 해당 어린이가 있는 곳으로 교육감이 이동하여 눈높이를 맞추고 시상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동했다.

다음으로 「전국 동시 쓰기 공모전」에서 입상한 어린이와 인천 광역시교육청 흥보대사 희극인 흥윤화씨가 함께 진행하는 동시 낭송 및 어린이 해방 선언 다시 읽기가 이어졌다. 흥윤화씨의 웃음을 주는 유쾌한 진행과 어린이 작가의 마음 뭉클한 감성이 잘 어우러진 무대였다.

어린이날 기념식을 마치고 운동장에서 「제1회 어린이 놀이 축제」가 개최되었다.



특집



운동장에 설치한 70개의 놀이 부스는 놀이의 과거-현재-미래 세대공감 놀이로 구성하여 어른이 더 잘하는 과거의 놀이, 어린이가 더 잘하는 현재의 놀이, 함께 배워보는 미래의 놀이를 통해 가족 내 세대 갈등을 해소하고, 즐겁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어린이 스스로 결대로 즐길 수 있도록 체육 놀이, 미술놀이, 음악 놀이, 전통 놀이, 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놀이 부스를 구성하여 많은 즐거움을 선물하였다.

놀이 부스 스탬프 투어를 통해 5종의 놀이를 체험할 때마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더욱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70개의 놀이부스는 인천의 어린이들이 즐겁고 신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각 부서, 경인교육대학교 학생회, 교원단체, 초등 놀며 자라는 행복학교, 놀이교육 교사 연구회 및 다양한 기관이 운영에 참여하였다. 홍보대사인 전 야구선수 정근우 선수는 팬 사인회 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했다.

운동장에 설치한 야외무대에서는 놀이마당 개막식과 밴드, 치어리딩, 마술쇼 및 댄스공연 등의 무대가 펼쳐졌다. 또한, 2023년 「제1회 인천 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서 입상한 어린이 단편영화 상영을 통해 미니 영화제도 개최하였다.





2024년,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개최한 「제1회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는 약 7,000명의 인천 관내 유·초등학생과 가족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여러가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다.”, “즐길거리가 많아서 좋았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가 주인이 되는 인천의 어린이날 대표 축제,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 내년에 다시 만나요! 2025년에도 어린이가 주인공, 맘껏 놀아요. **준비~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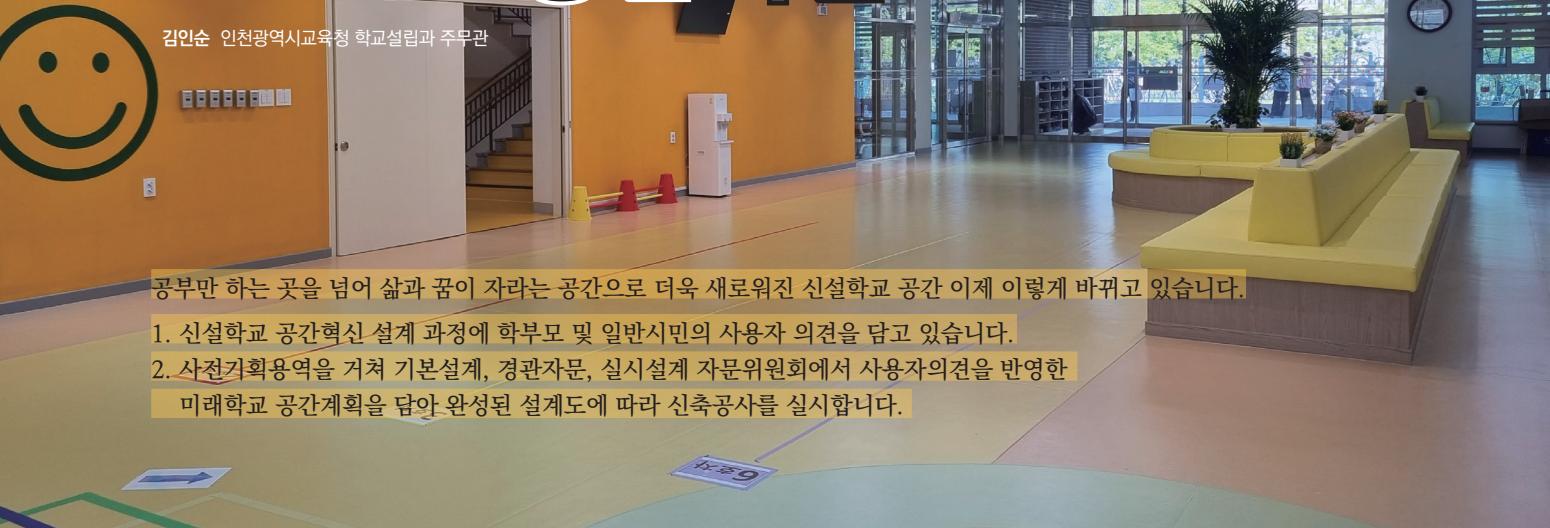


신설학교 공간혁신 이야기

김인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주무관

공부만 하는 곳을 넘어 삶과 꿈이 자라는 공간으로 더욱 새로워진 신설학교 공간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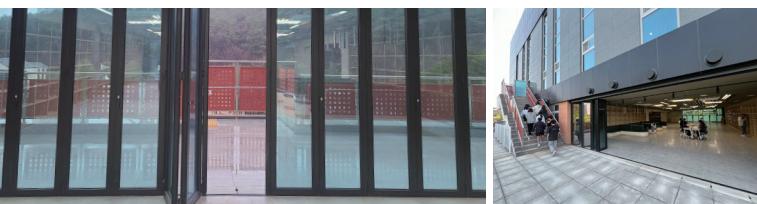
1. 신설학교 공간혁신 설계 과정에 학부모 및 일반시민의 사용자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2. 사전기획용역을 거쳐 기본설계, 경관자문, 실시설계 자문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미래학교 공간계획을 담아 완성된 설계도에 따라 신축공사를 실시합니다.



유형 1 오감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공간 1층 맞이홀, 3층 북스텝
극장과 연계한 음악, 공연 중심의 놀이공간 : 인천검단꿈유치원
(2024년 3월 개원) 유희실은 맞이홀, 식당, 도서실, 북스텝, 강당과
맞물려 있어 바닥에 그려진 트랙으로 서로 연결되어 아이들은 경계의
느슨함을 경험하며, 창의적인 사고력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유형 2 학습, 놀이, 휴식이 조화로운 맞춤형 소통 배움터에서 즐겁게
서로를 배우는 공간 : 인천아라초등학교 (2023년 9월 개교) 1층 시네마
스텝홀은 개방형 글마루이면서 도서관과 유희마루에서 책과 함께
하는 BOOK쉼터, 가변형 마루홀, 시청각실까지 “읽고 걷고 쓰는”
창의력 향상 공간에서 상상력을 함께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유형 4 우리는 모두 ‘다양성’을 가지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 인천운서중학교 (2024년 3월 개교)
홈베이스인 2층 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축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며, 폴딩도어를 열면 푸른 숲 자연을 담은 사색공간이 되기도
하고, 외부계단을 통해 강당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 / 간 / 사 / 례



검단꿈유치원
- 야외 놀이터



아람초 강당
led 전광판



루원중 - 카페루원



아라초 시네마홀
led 전광판



한들초 계단형
전시공간/생각나눔터



운서중 주출입구
현관 조명 / 시청각실
led 전광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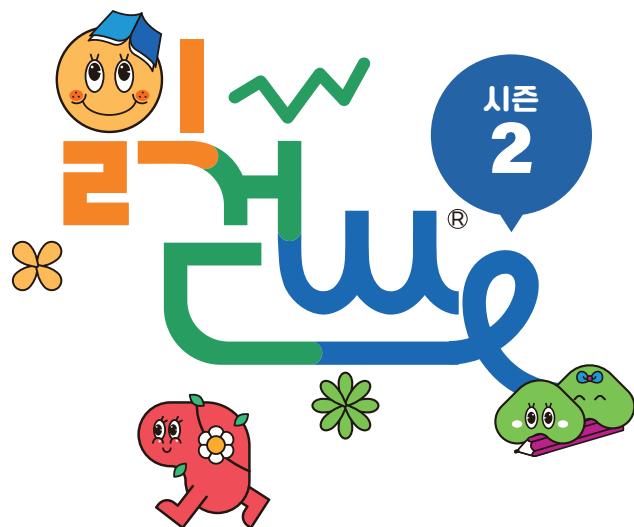


운서중 홈베이스



캠페인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읽는 가 뭐예요?



정의
비전
목표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일상의 경험이 특별한 배움이 되는 교육 실현

愛己愛他
애기애타

나를 위하듯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

건강한 신체·정서·인격을 갖춘 사람

- 명랑한 사람
 - 움직이는 사람
 - 함께하는 사람
 - 품위 있는 사람
- 밝고 적극적이며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
- 기꺼이 몸으로 체험하고 실천하는 사람
- 사람, 공동체, 환경에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
- 진실을 추구하고 삶의 성장을 이끄는 사람

學思習行

학사습행

배우고 생각하고 익히고 겪다

일상의 삶 전체가 배움이 되는 것

읽고 걷고 쓰면서, 배우고 성찰하며, 삶을 삶으로 실천

방향

학교 안팎의 지속적 읽는 교육을 통해

학생과 시민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왜 읽건쓰 예요?

+ 변화하는 시대, 바뀌지 않은 교육의 역설

- 물질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한 21세기 우리 사회,
과연 우리의 학교는 아이들이 좋은 삶을 위해
좋은 암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가?
- 우리는 암과 삶이 연결되는 교실,
배움의 방법이 삶의 방식에 통합되는 학교,
배움의 결과가 이해를 넘어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바라는가?



암과 삶이 연결되는 교육 실현 읽건쓰

ABILITY	ATTITUDE	TOOLS	PRACTICE	LEVERAGE
 텍스트를 읽고 쓰고 사용하는	 목적, 맥락, 참여자에 어울리게 읽고 쓰려는	 새로운 공부, 일, 삶에서 쓰임을 갖는 배움과 암의	 개인 혹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문화적, 전문적 활동에 참여하는	 지금 여기 현상태의 변화를 시작하는
능력	태도	도구	실천	지렛대

출처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조병영 교수 강의자료 2024.3

캠페인

읽瞌 어떻게 배워요?

+ 건강한 미래 역량

-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교육의 변화 요구 확대
- 인간과 인공지능(AI)의 공존, 자기다움에 대한 고민과 실천 필요
- 학교 안팎의 다양한 지식 영역, 삶의 경험, 문제 상황에 즐겁고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미래역량 신장으로 개인과 사회의 성장을 촉진



읽는 실천 방향

1 교육과정

앎과 삶이 일치되는 학습역량

- 읽기쓰는 통합된 학습 경험이자 교육방법으로 이해
- 생각을 꺼내는 교육으로, 삶의 맥락에서 배우고 성찰하고 실천하는 교수·학습 구현
- 삶의 맥락에서 학습자가 융복합적으로 읽고 걷고 쓰면서 구체적으로 지식을 탐구하고 새로운 의미를 이해, 창안, 표현, 소통하는 힘



2 시민문화

일상의 삶에 스며들기 글쓰기와 삶 읽기의 건강한 생활 습관

- 읽기쓰는 개인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사회적 소통을 위한 활동
- 책을 읽고 쓰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에 배움이 스며들어 평생학습자가 되는 것

3 전국화

사회적 영향력 강화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고 실천하기

- 읽기쓰로 자신의 건강과 배움에 대한 주체성 부여
- 환경문제, 글로벌 이슈, 사회문제를 읽고 소통하며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고 실천

교양 · 문화

캠페인



일상의 삶 전체가 배움이 되는 교육, **읽건쓰**

2024년 읽건쓰 출판기념회 개최

박근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주무관

인천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이 직접 쓴 책들이 모여 펼치는 2024년 읽건쓰 출판기념회가 따스한 봄날, 책향기가 가득한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사에서 열렸습니다. 읽기, 걷기, 쓰기의 줄임말로 시작하여, 통합된 배움의 경험을 대표하는 단어로 자리매김한 「읽건쓰」, 중요한 삶의 문제와 질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공부하고 경험하는 교육, 「읽건쓰」가 각 학교와 공공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등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는 읽건쓰를 통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부터 책이 된 읽건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출판전시회를 그런데 왜 지하철 역사에서 열었을까요?

읽건쓰 출판전시회가 지하철역사에서 열린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종이책이나 전자책 등을 읽기 바라는 마음에서 였습니다.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휴대폰 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책 읽는 문화를 다시 한번 되살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읽건쓰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시가 노랫말로 이어진 사전공연

출판전시회는 책을 노래하는 「서울밴드」의 공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책과 음악을 접목시킨 새로운 작품과 공연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서울밴드는 이번 출판전시회에서 특별한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조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쓰고 출판한 “꼬마 시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시집의 「선생님 사탕」 동시작품이 음악으로 탄생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아이들의 천진한 감성과 서울밴드의 감미로운 음악이 잘 어우러져 많은 분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인천은 읽건쓰 한다! 나는 작가다!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읽건쓰와 이번 출판전시회 개최 의미가 담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인사말과 인천문화재단 김영덕 대표이사, 인천교통공사 유중호 상임이사의 축사가 이어진 후, 특별하고 주목할 만한 선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성훈 교육감과 무대 위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작가들이 “인천은”라고 선창하고 관객 모두가 “읽건쓰한다”, 다시 “나는”이라고 선창하고 관객 모두가 “작가다.”라고 힘차게 호응하였습니다. 선언식에는 행사 안내문 속 책표지를 흔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은 읽건쓰의 도시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읽건쓰 이야기에 빠져들다.

도성훈교육감과 2023년 읽건쓰 활동을 통해 책을 출간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6명의 저자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부평동초 6학년

최수현 학생은 굴포천 답사 후 백일장에 참가해 작가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서운고 2학년 김은혁 학생은 인천 민주로드 탐방 통해 인천의 역사를 배웠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작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성 학부모 저자는 교육청 책쓰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며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자영 학부모 저자 또한 작년 책쓰기 프로젝트를 계기로 전자책과 시집을 출간했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최수정 교사는 학생들과 마을 그림책을 만들며 창작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영애 교사 역시 독서토론과 글쓰기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작가 모두 읽건쓰를 통해 삶을 대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읽건쓰 도서 전시와 재미있는 체험과 출판정보까지 알찬 읽건쓰 출판전시회

올해 읽건쓰 도서 전시회에는 약 650 종의 도서를 전시하였습니다.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은 책이 발간되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소규모로 출판한 경우가 많아, 전시까지 가능할 정도로 수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두 번째, 세 번째 도서 전시회에는 모든 책을 전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번 도서 전시회에서는 단순 도서 전시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이 쉽게 글을 쓰고 출판에 대한 문턱이 높지 않음을 알려드리기 위해 인천의 작가들과 독립 출판이 가능한 지역서점이 참여하여 글쓰기와 돋립

출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도록 「글쓰기, 돋립 출판 상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그림책 만들기 체험공간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AI에게 간단한 줄거리나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이야기에 맞는 그림을 생성해주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그림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 AI에게 이야기의 주제와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명하면 AI가 그에 맞는 그림을 생성해줍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생성된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우 AI에게 추가 지시를 내려 그림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AI가 생성한 그림을 보며 상상력을 발휘해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니 굉장히 재미있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AI의 도움으로 쉽게 그림책을 만들 수 있어서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우리의 읽건쓰 이야기는?

이번 읽건쓰 출판기념회는 읽기, 걷기, 쓰기가 통합된 역동적인 배움의 경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다양한 작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읽건쓰가 단순히 교육 방법론을 넘어 삶 자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읽건쓰 활동은 지속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읽건쓰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삶의 리터러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에 읽건쓰 철학이 반영되고, 시민운동으로 확산되어 읽건쓰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매년 계속될 읽건쓰 도서 전시회는 읽건쓰의 결실들을 모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전시회에는 더 많은 책들이 전시되고, 다양한 체험과 정보가 제공되어 시민들이 읽건쓰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읽건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배움과 성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캠페인

인천교육소식지

여름호

인천시교육청 홍보대사를 소개합니다! 파스텔걸스 편

오상돈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주무관



| 인천교육청 홍보대사 |

조나단, 흰, 신용남, 웃소, 파스텔걸스, 홍윤화, 송글송글, 정근우

파 스텔걸스는 리더 김수민, 서브보컬 강희빈, 메인댄서 정소이, 리드보컬 한다운, 메인보컬 김도현 총 5명의 멤버로 구성된 그룹가수로 지난 2018년 싱글앨범 '알쏭달쏭'으로 데뷔했는데요. 멤버 중 4명이 인천에서 학교를 졸업한 우리지역 출신이랍니다. 자 그럼 자랑스러운 인천의 걸그룹, 파스텔걸스를 만나볼까요?

파스텔걸스 주요 경력

- 2018 싱글앨범 [알쏭달쏭] 데뷔
- 2018 전국노래자랑 미추홀구편 인기상, KBS전국노래자랑연말결선 대상
- 2019 전국노래자랑 40주년 청춘편 최우수상
- 2020 미스트롯2 본선 '손님온다' 유튜브 조회수 1000만회 ↑
- 2021 '효녀심장' 음악방송데뷔(SBS더쇼, MBC쇼챔)
- 2022 '대한민국 연예문화대상' 최우수 걸그룹 수상
- 2024 '제30회 대한민국연예예술상' 그룹 가수상 수상

“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든든한 홍보지원군, 바로 연예인 홍보대사인데요. 인천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시민과 더욱 가까운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연예인 홍보대사 8명(팀)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과 색깔로 인천교육을 빛내주는 우리 홍보대사들! 이번 인천교육소식지(여름)에는 그 중에서도 인천의 소녀들이 모여 가수의 꿈을 이뤄낸 '파스텔걸스'를 소개하려 합니다.

”



Q 파스텔걸스는 어떤 그룹인가요?

파스텔걸스는 5인조 대한민국 최초 한류 퓨전 걸그룹이에요.

국악부터 트로트, K-pop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여 탄탄한 기본기와 실력을 갖춘 ‘잘 준비된’ 걸그룹이죠! 파스텔걸스 그룹명은 순수한 멤버들의 다양한 개성을 보여주자는 의미로 지어졌어요. 처음에 ‘무지개걸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천만다행(?)입니다. ㅎㅎ



리더 김수민(20)

인천비즈니스고(졸)

Q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미래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전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때로는 포기도 해보고?! 포기를 자주 하면 좋지 않겠지만, 포기란 걸 할 줄 알아야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세요!

서브보컬 강희빈(20)

한국주얼리고(졸)

Q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미스트롯2 출전했을때가 생각나요. 처음 참가하는 오디션 프로였고 너무나 간절했어요. ‘연습만이 살길이다’ 생각하고 잠을 잤는지 밥을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시간을 연습에 썼어요.

메인댄서 정소이(20)

영화국제관광고(졸)

Q 인천시교육청과는 어떤 인연이?

2021년도 인천시교육청 홍보대사로 위촉 되었는데, 당시 교육청 장학사님이 관심있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멤버 4명이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며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인천 학생으로서 인천 교육청 홍보대사가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고 책임 감도 느껴요. 인천시 교육청 행사에 자주 참여 하는데 그때마다 유독 더 열심히 무대에 서고 있어요.

리드보컬 한다운(19)

인천비즈니스고

Q 학창시절 가수의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멤버 대부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와 춤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내 길이다!” 생각하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연습실에 가서 녹초가 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지금도 변함없고요^^ **Q** 공부는 잘했나요?
A 공부는.....열심히는 했습니다 ㅋㅋ 인성이 중요하죠! (맞는말)

메인보컬 김도현(19)

국립전통예술고

Q 파스텔걸스 노래 중에 추천하는 노래가 있다면?

판소리와 케이팝이 접목된 ‘효녀심청’이요. 저희의 색깔이 잘 드러나기도 하고, 2021년 ‘SBS 더쇼’에서 방송무대로 데뷔한 곡이라 의미도 있거든요. 당시 방송무대도 실수 없이 마치게 되어 뿌듯 했고, 힘들게 연습했던 생각에 멤버들 모두 울컥했어요ㅎㅎ

Q 앞으로의 목표?

꾸준하게, 오래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드리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미래’를 만드는건 ‘현재’이 듯, 지금은 저희가 하는 모든 무대에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보면 언젠가 저희 음악이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신곡 ‘경사로세’(청룡희망가 앨범)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Idol Star

인천 난정 평화교육원을 소개해요

안수경 인천난정평화교육원 교사

**국내 교육청 최초의
평화교육전문기관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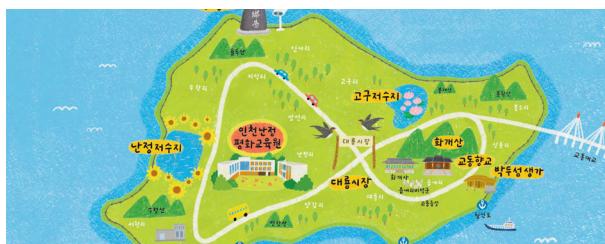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2019년 폐교된 난정초등학교를 새롭게 조성하여 청소년, 대학생, 외국인,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평화의 섬,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평화교육 자원들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의 평화감수성과 평화역량을 기를 수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평화의 섬 교동도는 우리나라 중에서도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과 경계가 가깝다는 지리적, 역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다른 접경지역과는 다르게 선으로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위치하고 있지요.

이러한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남과 북의 평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화와 공존의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 세워졌어요.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모두의 평화’라는 공통 주제로 기획된 4개의 상설 전시관과 1개의 기획 전시관, 대상별 맞춤형 평화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실이 있는 평화(교육)동과 숙박형 평화체험교육 운영을 위해 객실, 급식실, 보건실 등으로 조성된 공존(생활)동이 있어요.

또한 강화도에서 자생하는 멸종위기 및 희귀 식물이 자라는 평화정원과 마을의 이름을 따서 지역주민의쉼터가 되어 주는 꽃우물카페도 있지요.

직접 평화의 길을 걷고 생각을 나누며 나로부터 시작된 평화가 우리 모두의 평화가 되기를 희망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1 학생 대상 교육

오순도순 제비처럼

교동도의 사계절이 살아있는 화개산에서 다양한
동식물과 교감하고, 대룡시장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연계한 공존 방법 모색하기
» 주요 내용 요소 : 공존

- 대상 초등 5~6학년 학생
- 기간 2024. 3.~5, 9.~10.
- 장소 화개산,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인천난정평화교육원
- 시간 숙박형(1박2일)/1일형(5시간)
- 인원 그룹별 20명 내외

순덕이의 피난 일기 Ⅰ,Ⅱ

교동도 실향민 이순덕 할머니의 피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쟁의 아픔을 공감하고 평화의 소중함 느끼기
» 주요 내용 요소: 전쟁, 폭력

- 대상 초등 5~6학년, 중·고등 학생
- 기간 2024. 3.~5, 9.~10.
- 장소 망향대, 주민대피소, 대룡시장,
인천난정평화교육원
- 시간 숙박형(1박2일)/1일형(5시간)
- 인원 그룹별 20명 내외

시선, 경계를 넘어

망향대에서 바라본 실제 북한의 모습을 통해 편견을
확인하고 박두성 생가에서 박두성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차별 극복 사례를 찾아 우리의 일상과 비교하기
» 주요 내용 요소: 차별

- 대상 중·고등 학생
- 기간 2024. 3.~5, 9.~10.
- 장소 망향대, 박두성생가, 대룡시장,
인천난정평화교육원
- 시간 숙박형(1박2일)/1일형(5시간)
- 인원 그룹별 20명 내외

정보

1 학생 대상 교육

대룡시장 사람들

대룡시장 탐방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찾고 화개산을 탐방하며 생태적 다양성을 공유하여 우리 사회 속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를 찾아 실천하기

» 주요 내용 요소 : 다양성

- 대상 중·고등 학생
- 기간 2024. 3.~5, 9.~10.
- 장소 박두성생가,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인천난정평화교육원
- 시간 숙박형(1박2일)/1일형(5시간)
- 인원 그룹별 20명 내외

리더는 필요해!

공동체놀이를 통한 배려, 존중,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교동향교(비석군), 대룡시장을 탐방을 통해 좋은 리더의 역할 모색 및 실천 다짐하기

» 주요 내용 요소: 갈등, 공존, 소통

- 대상 학생자치회(초·중·고) 학생
- 기간 2024. 3.~5, 9.~10.
- 장소 교동향교(비석군),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인천난정평화교육원
- 시간 숙박형(1박2일)/1일형(5시간)
- 인원 그룹별 20명 내외

2 시민 대상 교육

평화의 숨

화개산 오솔길을 걸으며,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고 대룡시장 탐방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 방법 모색하고 실천하기

» 주요 내용 요소: 공존

- 대상 시민 (개인, 단체)
- 기간 2024. 6.~8, 11.~12.
- 장소 화개산(오솔길), 대룡시장,
인천난정평화교육원
- 시간 숙박형(1박2일)/1일형(5시간)
- 인원 그룹별 20명 내외

평화의 바람

교동도 포구와 바닷길을 걸으며 섬이 주는 자연환경을 느끼고 대룡시장 탐방을 통해 자연과의 공존 방법 모색하고 실천하기

» 주요 내용 요소: 공존

- 대상 시민 (개인, 단체)
- 기간 2024. 6.~8, 11.~12.
- 장소 포구(동진포~월선포), 대룡시장,
인천난정평화교육원
- 시간 숙박형(1박2일)/1일형(5시간)
- 인원 그룹별 20명 내외



2 시민 대상 교육

뒤물이 마을 이야기

교동도 난정저수지 형성 과정에서 수몰된 뒤물이 마을과 소나무 이야기를 통해 평화적 갈등 해결 방법 모색하기

» 주요 내용 요소: 갈등

- 대상 시민 (개인, 단체)
- 기간 2024. 6.~8, 11.~12.
- 장소 난정저수지,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인천난정평화교육원
- 시간 숙박형(1박2일)/1일형(5시간)
- 인원 그룹별 20명 내외

평화를 함께 「읽 · 걷 · 쓰」

평화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교동도의 철책선을 걸으며 평화와 공존의 방법을 사색하고 함께 글쓰기

» 주요 내용 요소: 공통

- 대상 시민 (개인, 단체)
- 기간 2024. 3.~12.
- 장소 대룡시장, 화개산, 박두성생가,
난정저수지, 인천난정평화교육원
- 시간 숙박형(1박2일)/1일형(5시간)
- 인원 그룹별 25명 내외(별도모집)

평화로운 가(家)

대룡시장과 망향대에서 실향민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 가족의 평화 이야기 나누기

» 주요 내용 요소: 갈등, 소통, 가족 평화 문화 진단

- 대상 인천 관내 가족
(초등학생 이상 자녀 포함)
- 기간 2024. 1.~2, 7.~8.
- 장소 망향대,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인천난정평화교육원
- 시간 숙박형(1박2일)/1일형(5시간)
- 인원 60명 내외(별도모집)

가족 애(愛) 소통

화개산과 대룡시장을 탐방하며 가족과 소통하고 가족의 덕목을 찾아가는 시간을 통해 가족 평화를 위한 실천 다짐하기

» 주요 내용 요소: 갈등, 협동, 소통

- 대상 인천 관내 가족
(초등학생 이상 자녀 포함)
- 기간 2024. 1.~2, 7.~8.
- 장소 화개산,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인천난정평화교육원
- 시간 숙박형(1박2일)/1일형(5시간)
- 인원 60명 내외(별도모집)

인천난정평화교육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어요.



정보

우주, 그리고 미래를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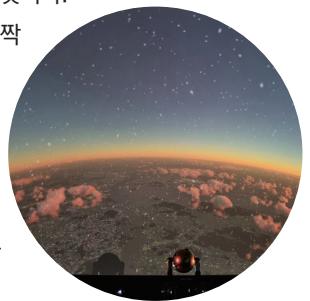
인천학생과학관 천체투영실의 재탄생

강미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교육연구사

별과 사람, 그리고 우주

어릴 때부터 우리에게 별과 우주는 호기심의 대상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복두칠성을 찾아보기도 하고, 소원도 빌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김소월의 ‘별해는 밤’처럼 별 하나에 추억을 담아본 이도, 우주를 탐험하는 꿈을 가져본 이도 있을 것이다.

최근 밤하늘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봤어도 우리가 어릴 적 봤던 밤하늘의 모습과 많이 다름을 느낄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며 아름다웠던 밤하늘을 인천에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도시를 환하게 비추는 빛, 그리고 하늘을 뿌옇게 덮는 먼지로 인해 어릴 적 우리가 보았던, 그리고 동경하였던 별과 밤하늘, 그리고 우주를 볼 수가 없다.



인천학생과학관 천체투영실의 역사

천체투영실은 천체투영기, 즉 플라네타리움이라는 기기를 통해 반구형의 돔스크린에 밤하늘의 별자리를 구현하는 공간이다. 이는 밤에만 볼 수 있었던 별들을 낮에도, 누구나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연구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천체투영기의 역사를 찾아보면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아르키메데스의 그림 속에 천체투영기의 묘사된 것을 바탕으로 그 역사를 짐작할 수 있다. 그 이후, 2000년이 지난 1923년, 독일의 예나에서 지금 형태의 천체투영기를 선보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해군사관학교에서 처음으로 천체투영기를 도입하였고, 1967년 광화문 옥상에 천체투영관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00개가 넘는 천체투영관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100여 개의 천체투영관이 존재한다.(79, survey 2022 by Metaspace)



인천학생과학관의 천체투영실은 2004년 2월에 개관하여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초창기에는 독일 Zeiss에서 개발한 Star Master No. 573을 도입하여 운영하다가 2024년 새로운 투영기 Mastar II - B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2009년 GOTO사의 올돔 3D 투영시설로 완비해 이용하다가 올해 Sky Explore 디지털시스템으로 교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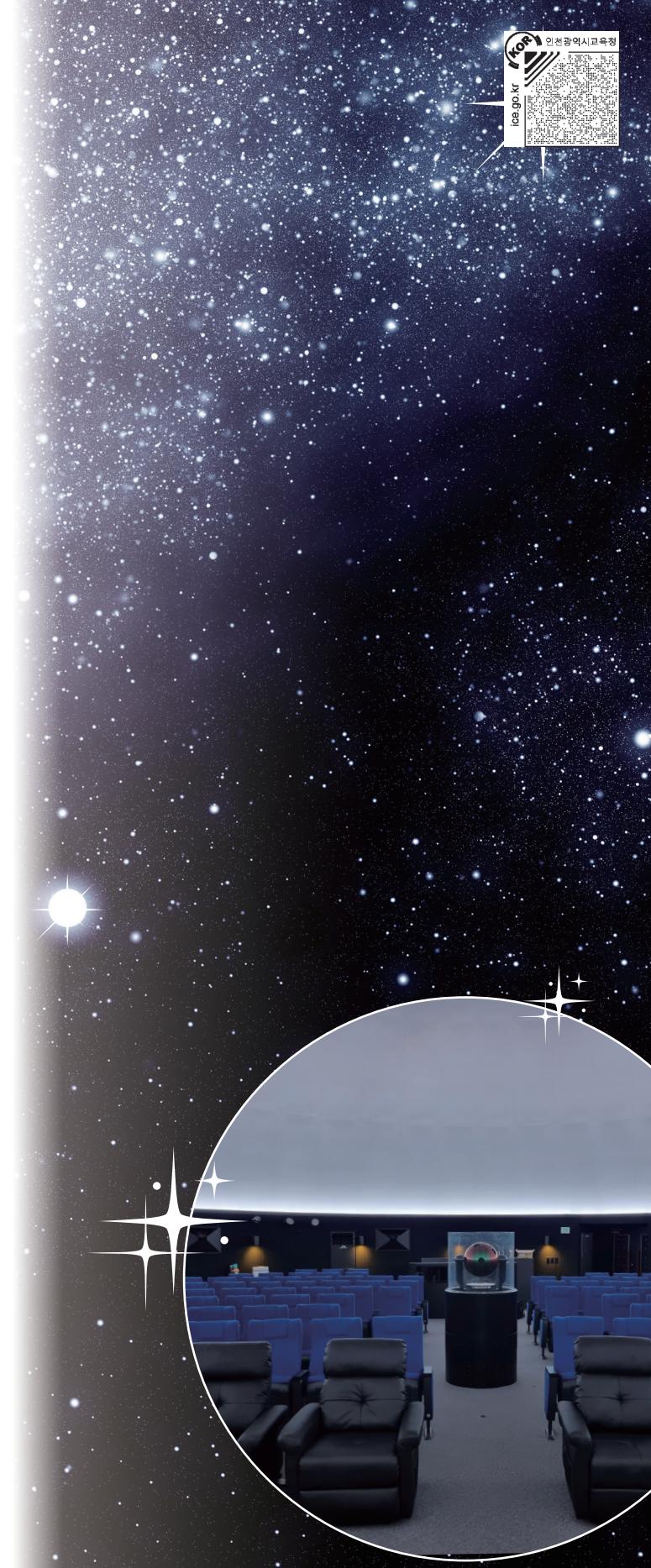
새롭게 탄생한 인천학생과학관 천체투영실

인천학생과학관 천체투영실은 직경 15m의 반구형 돔스크린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인천학생과학관 천체투영실 개선 사업을 통해 기존의 노후화된 천체투영 시스템과 실내인테리어, 전시실을 교체하여 올해 2월부터 새단장 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이원화였던 디지털천체투영시스템과 광학식 천체투영기를 일원화하여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하이브리드식 천체투영시스템으로 바꾸고 다양한 천체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돔스크린의 타공률을 높여 좀 더 생생하고 선명한 영상물이 재연될 수 있도록 217개의 스크린 패널로 바꾸었으며 6채널 레이저 빔프로젝터 7대를 도입하여 국내 최고의 천체투영 영상시스템과 시설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좌석 수를 170석에서 130석으로 조정하여 좌석 간의 간격을 넓이고 무대 공간을 확보하여 관람객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천체투영실 입구를 은하수를 연상할 수 있도록 4,000개의 광섬유와 특경으로 전시실을 꾸몄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Star Master No. 573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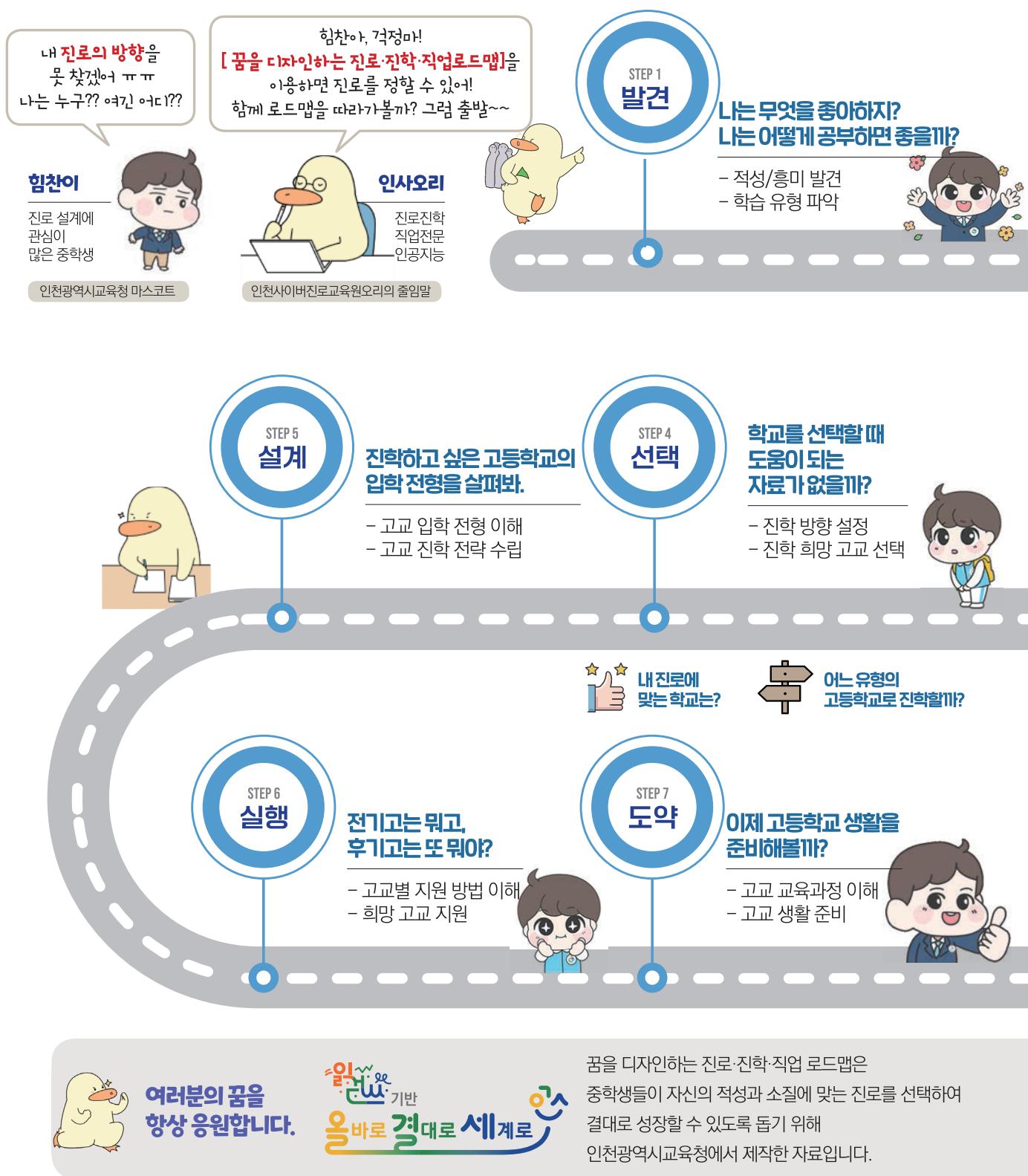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학생과학관의 천체투영실은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무료 운영된다. 평일 오전에는 초등 학생 대상으로 학급별 1일 과학탐구교실의 계절별 별자리 상영이 있고 오후에는 어린이, 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1일 2회의 계절별 별자리, 천체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다. 그리고 주말과 방학 중에는 11:00, 14:00, 15:00, 16:00로 1일 4회로 천체 애니메이션 및 천체 영상물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한 해 평균 관람 인원이 70,000명 넘으며, 2024년 하이브리드 천체투영실로 재개관한 이후, 11,942명(2024. 2. 1. ~ 4. 30.)이 다녀가 영종도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였다.

앞으로의 기대

인천학생과학관 천체투영실은 인천에 존재하는 천체투영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곳이다. 그리고 최근 개선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도 가장 좋은 시설과 영상물을 갖추고 있다. 이는 인천교육이 우주를 향한 미래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6,000개가 넘는 인공위성이 운영되고 우주여행이 현실화되는 현시점에서, 천체투영실을 활용한 교육은 가장 중요한 과학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천학생과학관 천체투영실은 인천 과학교육의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자부한다.



정보



꿈을 디자인하는 (중학교) 진로·진학·직업 로드맵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다양한 직업 특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직업 세계 탐색
- 계열 정보 이해

STEP 2
탐색



STEP 3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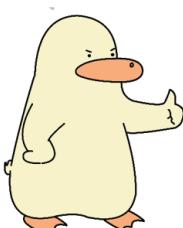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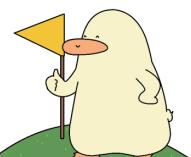
고등학교는 유형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 고교 유형 탐색
- 고교 정보 이해



진로·진학·직업 준비를 위한
각 단계별 더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있어.

내 진로의 방향을
찾은 것 같아!
고마워, 인사오리!!!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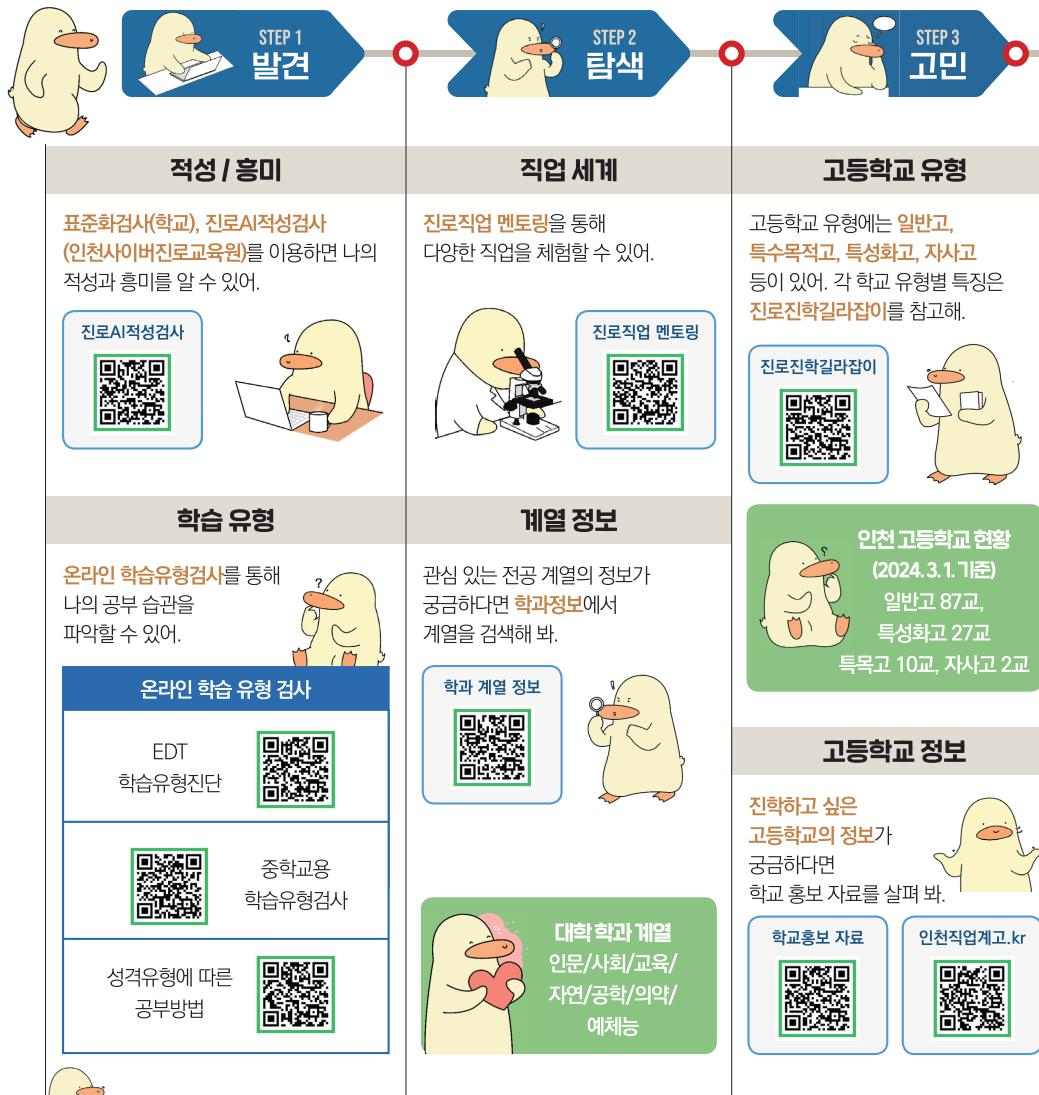
언제, 어디서나 진로·진학·직업 준비를 위한 모든 것!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정보

입학



나의 진로 · 진학 준비도는? ※ 해당 단계 탐색을 완료하면 ✓ 표를 하면서 정리해 보자.

- 나의 적성 _____
- 나의 흥미 _____
- 나의 학습 강점 _____
- 나의 학습 단점 _____

- 내가 탐색한 직업 _____
- 나의 희망 진학 계열 _____

- 관심있는 고등학교 유형 _____
- 관심있는 고등학교 _____

꿈을 디자인하는 [중학교]

진로·진학·직업 로드맵 자기주도 진로 설계 안내

고교 진학,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졸업



진학 방향

어느 유형의
고등학교로 진학할지
선택해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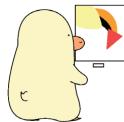


진학 방향 설정 도움 자료

- 인천사이버 진로교육원 - 고교정보
- 인천직업박람회(특성화고)
- 인천청소년진로박람회
-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

고등학교 입학 전형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궁금증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자료실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고등학교 입학 전형, 학교군, 선호도 조사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어.



고등학교 지원

지원하는 학교가 전기고인지, 후기고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해

이제 예비고등학생이 되었으니 인천고교학점제 홈페이지의 고교학점제 미리보기 자료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을 알고 고교학점제를 준비해 봐.

인천고교학점제



더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실에 문의해봐.

전화 ☎ (032)420-8475
운영시간 : 09:00~18:00



진학 희망 고교

고입전형파노라마,
특성화고/マイ스터고
안내자료를 참고해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교를 정해 봐.



고입전형 파노라마



인천특성화고/マイス터고 안내자료



고등학교 진학 전략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입학설명회, 직업계고 진학설명회 등을 통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과학, 국제고,
외국어고, 자사고



진로관련 상담은 학교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 진로진학상담선생님,
시교육청 진로진학상담실(마중물)의
도움을 받으세요.



진학 희망 고등학교 유형

진학 희망 고등학교

진학 희망 고교 입학 전형 유형

나만의 고등학교 진학 전략

진학 희망 고등학교 전형 시기

진학 희망 고교 입학 전형 방법

진학 고등학교명

고교에서 듣고 싶은 과목

정보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대학 진학
준비가 맞는지 모르겠어.

자람이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인
고등학생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스코트

자람아 안녕. 대학 진학 준비 힘들지?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 로드맵]을
이용하면 대학 진학을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어! 함께 로드맵을 따라가 볼까? 그럼 출발

인사오리

진로진학
직업전문
인공지능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오리의 출입문

STEP 1 자기 분석

나의 적성, 진로 성향,
학습성향을 알고 싶어.

- 적성/진로 분석
- 학습 성향 파악



STEP 5 전략 수립

나에게 맞는 대입전형을 찾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 대입 전형 이해
- 대입 전형 계획 정리



수시와 정시는
어떻게 다르지?



STEP 4 학업 성취

희망 전공과 관련된
교과/비교과 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는 없을까?

- 교과/비교과 활동
- 수능 대비 학습



STEP 6 진학 결정

관심 대학의 입학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대학별 전형 준비
- 희망 대학 결정



STEP 7 맞춤 대비

수시 및 정시 전형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

- 수시 지원 전략
- 정시 지원 전략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 로드맵은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여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작한 자료입니다.

꿈을 디자인하는 (일반고) 진로·진학·직업 로드맵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대학에는 어떤
전공들이 있을까?



나의 학습 강점과
약점은 무엇일까?

- 관심 전공 탐색
- 학습 전략 수립

STEP 2
전공 탐색



내 전공에 적합한
선택 과목은 뭘까?

선택 과목을 정하고 있는데
정보가 부족하네.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을까?

- 학교교육과정 이해
- 과목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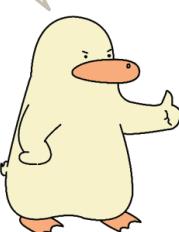
STEP 3
**진학
설계**



졸업과 입학을
축하해!



대학 진학 준비에 도움이
됐어? 각 단계별 더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있어.



대학 진학 준비에
자신이 상기했어.
고마워, 인사오라!!!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언제, 어디서나 진로·진학·직업 준비를 위한 모든 것!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정보

입학

STEP 1 자기 분석

STEP 2 전공 탐색

STEP 3 진학 설계

적성/진로 <p>표준화검사(학교), 진로AI적성검사(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를 통해 적성과 진로 성향을 알아 봐.</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진로AI적성검사</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관심 전공 <p>전공에 대해 탐색하고, 대학에서 배우고 싶은 전공을 선택해 봐.</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전공 탐색 도움 자료</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wrap: wrap;"> <div style="margin: 5px;">1. 회상멘토링-회상멘토링상담</div> <div style="margin: 5px;">2. 진로진학정보-마중물진학- 학과정보</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right: 10px;">화상 멘토링 상담</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right: 10px;">대학 학과 정보</div> </div> </div>	교육과정 이해 <p>학교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여해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봐.</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알리미 및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어.</div> </div>
학습 진단 <p>내신,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분석을 통해 학습성향을 파악해 봐.</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학습 전략 <p>고등 쌤튜브와 함께하는 방학 5주 프로젝트 영상을 보면서 나의 학습 강점과 약점에 맞는 학습전략을 세워 봐.</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right: 10px;">학습 진단</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right: 10px;">성적 분석</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10px;">고등 쌤튜브</div> </div>	과목 선택 <p>과목 선택 랭킹 박람회를 참고하면 관심 전공과 연계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right: 10px;">과목 선택 랭킹 박람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right: 10px;">꿈두레 공동 교육과정</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right: 10px;">과목 선택 랭킹 박람회</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right: 10px;">꿈두레 공동 교육과정</div> </div>
나의 진로 · 진학 준비도는? * 해당 단계 탐색을 완료하면 ✓ 표를 하면서 정리해 보자.		
<input type="checkbox"/> 나의 적성 _____ <input type="checkbox"/> 나의 흥미 _____ <input type="checkbox"/> 나의 학습 강점 _____ <input type="checkbox"/> 나의 학습 단점 _____	<input type="checkbox"/> 나의 관심 전공 _____ <input type="checkbox"/> 나만의 학습 전략 _____	<input type="checkbox"/> 수강 희망 선택 교과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꿈을 디자인하는 (일반고) 진로·**진학·직업** 로드맵 자기주도 진학 설계 안내

**대학 진학,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졸업



<input type="checkbox"/> 교과/비교과 활동 계획	<input type="checkbox"/> 나에게 적합한 대입 전형	<input type="checkbox"/> 희망 진학 대학	<input type="checkbox"/> 수시 지원 전략
<input type="checkbox"/> 수능 공부 계획	<input type="checkbox"/> 대입 전형 준비 계획	<input type="checkbox"/> 희망 진학 대학 입학 전형 방법	<input type="checkbox"/> 정시 지원 전략

정보

행복한 직업인을 꿈꾸며
내가 하고 있는
선취업 후학습 준비가
맞는지 모르겠어.

자람이

선취업 후학습을
준비 중인
직업계고 학생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스코트

자람아! 안녕, 취업? 창업? 진학?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니?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 로드맵]을
이용하면 선취업 후학습을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어! 함께 로드맵을 따라가 볼까?

인사오리

진로진학
직업전문
인공지능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오리의 줄임말

STEP 1 자기 분석

나의 직업 적성,
직무 역량을
정확히 알고 싶어.

- AI기반 자기분석
- 자기이해



STEP 5 전공 심화

내 꿈의 날개를
펼칠 힘을 기르고,
내 꿈을 펼칠 무대를
더 넓게!

- 해외교류 프로그램
-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STEP 4 학업 관리

나에게 맞는 전공역량을
기르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하나?



전공 분야 전문가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가려면?

- 직무별 숙련기술 습득
- NCS기반 실습 수업



꿈 키우기



직업설계 단계

STEP 6 현장 실습

관심 기업의
취업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가치중심 현장실습
-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졸업을 축하해!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

<https://jci.ice.go.kr>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 로드맵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자신의 결대로 성장하여 행복한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작한 자료입니다.

꿈을 디자인하는 (직업계고) 진로·진학·직업 로드맵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꿈 심기



자기이해 단계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전문분야를 탐색해 볼까?

STEP 2
전공 탐색

- 직업 탐색
- 진로방향 설정



꿈 뜨우기



직업탐색 단계

STEP 3
학습 설계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수업이다가아니야?
나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구?

- 맞춤형 직업교육
- 자기주도 진로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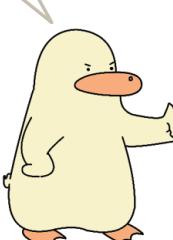
내 전공에 적합한 선택 과목은 뭘까?

행복한 직업인의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갔어
고마워, 인사오리!!

꿈 펼치기



평생교육 단계



선취업 후학습 준비에
도움이 됐어? 각 단계별 더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 있어.



언제, 어디서나 진로·진학·직업 준비를 위한 모든 것!



인천광역시교육청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정보



꿈을 디자인하는 (직업계고) 진로·진학 ·★직업 로드맵 선취업·후학습 진로 설계 안내

선취업 후학습,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직업 적성 검사, 프로그램 신청, 선취업·후학습 자료 등을 찾을 수 있어]

참여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나에게 적합한 직무는? <input type="checkbox"/> 취업할까? 창업할까? 진학할까?	<input type="checkbox"/> 희망 기업체	<input type="checkbox"/> 직무역량 강화 전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감

대전환 시대, 인천교육의 방향¹⁾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았던 변화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 속도를 더욱 빠르게 했으며, 학교란 무엇인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와 같은 교육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했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돌봄의 문제, 교육복지 등 다양한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했고, 기후위기, 인구 절벽, 갈등의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겼다.

이제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며, 이 전환기는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도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당겨진 디지털화는 인천이 디지털 교육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돌봄, 교육복지 등에 적극 대응한 결과 인천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 앞에 주어진 다양한 현안도 지금까지

한 교육에 방향성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대전환 시대의 교육은 공동체성에 기반한 학생 개인 맞춤형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읽쓰쓰를 기반으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임기까지 진행했던 ‘책 읽는 도시, 인천’ 사업에 걷기와 쓰기를 넣어 읽쓰쓰를 만들었다. 본래 독서교육은 읽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쓰기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완결된다. 그래서 쓰기를 넣었다. 또한 여기서 걷기는 물리적 걷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걷기. 즉 세상을 알아가는 다양한 경험을 말한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에 대해 인간과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만 하는 시대.

우리는 아이들에게 세상을 읽을 줄 아는 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자라게 해야 한다. 건강한 신체와 정서, 인격을 바탕으로 세상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며, 주도적으로 행동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인천은 읽쓰쓰한다! 그간

읽쓰쓰를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개인의 변화는 물론, 사회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밤샘 독서를 하고, 시민들은 도서관에 모여 밤샘 출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 속에서 1년간 11,300여 명의 학생, 학부모, 시민 저자, 1,300여 종의 책이 나왔다. 또한 학교와 도서관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만든 책이 비치되고, 다시 이것이 인기리에 열람되고 있다. 이 모든 변화가 읽쓰쓰로 달라지고 있는 인천교육의 현재 모습이다. 읽쓰쓰는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책뿐만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읽고, 걷기로 다양한 세상을 만나며, 쓰기로 세상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이 읽쓰쓰다. 우리 아이들이 읽쓰쓰로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는 사람, 건강한 신체와 정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의 읽쓰쓰 학습 역량을 시민의 읽쓰쓰 문화 역량으로 심화



도전하고, 소통하며, 변화했듯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환 시대의 위기를 도전, 변화, 소통으로 전환하는 것은 ‘학생성공시대’를 위한 중요한 개념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AI가 공존하고 협력하는 시대에 필요



1) 2024.4.5. 호치민국립사범대학 강연 자료 재구성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데, 교육은 바뀌지 않는 역설. 물질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한 21세기 우리 사회, 과연 우리의 학교는 아이들이 좋은 삶을 위해 좋은 앎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앎과 삶이 연결되는 교실, 배움의 방법이 삶의 방식으로 통합되는 학교, 배움의 결과가 이해를 넘어 실천으로 이어지는 교육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읽걷쓰를 제안한 것이다.

읽걷쓰를 통해 아이들이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읽걷쓰를 교육과정 속에 학습 역량으로 포함해야 한다. 읽걷쓰를 통합된 학습경험이자 교육적 접근으로 이해하고,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닌, 생각을 꺼내는 교육을 위해 읽걷쓰를 바탕으로 삶의 맥락에서 배우고 성찰하고 실천

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 둘째 글쓰기와 삶 읽기의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서의 시민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시민들이 책을 읽고 쓰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일상에 배움이 스며드는 평생

학습자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읽걷쓰가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읽걷쓰 문화가 지역, 연령, 성별 등 다양하게 적용돼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 읽걷쓰의 확산으로 환경문제, 글로벌 이슈, 사회적 문제를 전 세계인이 함께 읽고, 소통하며, 협력적으로 해결되어 가길 바란다.

우리 교육청은 읽걷쓰 교육을 기반으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에 힘을 모으고 있다. 올바로 교육은 바른 인성과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고, 결대로 교육은 잠재역량 발현을 위한 개별 맞춤형 교육이며, 세계로 교육은 인천을 바로 알고, 세계를 나아

갈 수 있는 글로컬 역량을 위한 교육이다.

올바로 교육, 결대로 교육, 세계로 교육은 몇 가지 정책들과 관련지어 실현할 수 있다. 첫째 인천만의 특화된 비교과 교육이다. 세상이 곧 책이고, 배움터다. 읽걷쓰를 기반으로 일상이 특별한 배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들과 세상 그리고 세상과 배움을 디자인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일상의 경험이 특별한 배움이 되는 교육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 길 탐방, 바다학교, 청소년영화제, 글로벌스타트업학교, 평화캠프, 백령도 판소리 교육 등 다양한 인천 특화 교육을 접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교육복지다. 튼튼한 교육복지가 바탕이 되어야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도 순항할 수 있다. 만 5세~ 고교까지 무상교육, 1인 1노트북,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 등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이 뒷받침되어 인천교육도 학생성공시대로 직진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인천은 3시간이면 100만 도시 147개로 갈 수 있는 하늘과 바닷길이 있고, 15개 국제기구와 다양한 외국대학 캠퍼스가 존재한다. 코로나19 중에도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만든 이유가 이것이며, 올해부터 연 3천 명의 교직원과 학생의 국제교류를 위한 세계로배움학교 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이것이었다. 올바로, 결대로 교육 정책을 세계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읽걷쓰도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인성·시민성 교육도 글로벌 역량 속에서 더 깊고 견고해질 수 있으며, 진로·진학·직업교육도 세계로 교육 속에서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 저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는 학생성공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파도를 막을 수는 없으나, 파도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다.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인생에서 맞이할 파도를 잘 타고 넘어 가는 삶의 힘이 자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고맙습니다.



읽쓰 추진단 위촉식 및 토론회



학교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교육의 미래

학교의 과거와 현재

베이비붐에 태어난 50, 60대 세대들은 기억할 것이다. 6.25 전후 한 집에 6~10명씩의 자녀를 두는 집이 많았고 이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학교는 콩나물 교실이었다. 한 교실에 70명 내외의 아이들이 어떻게든 제도권 교육의 일원이 되어 배움을 이어 나갔고, 과밀이 더 심해지면 2부제 수업을 운영 할 정도로 공교육의 현장은 뜨거운 삶의 현장이었다. 이후 베이비 봄 2세대들이 성장하여 학령기가 될 때까지 학교는 포화 상태였다. 그러나 그들이 학부모가 된 지금은 학생 수가 그 시절의 절반에서 도 반토막이 난 상태이다. 최근 반토막이 난 출생아수 만 살펴보아도 급격하게 줄어든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1960년	1971년	1981년	1992년	2000년	2010년	2023년
108만	102만	86만	73만	64만	47만	23만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학교는 규모의 확대와 축소의 과정을 단기 간에 겪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북적이던 옛 학교의 모습을 기억하는 기성세대들이 현재의 한 학년 50명도 채 안되는 작은 학교가 되어 폐교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보면, 엄청난 변화에 놀라기도 하고 인구 급감이 국가 존망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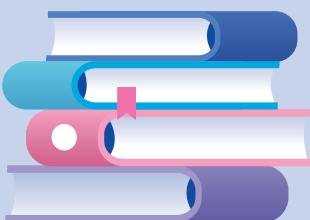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교직생활 37년째를 맞는 나는 80년대 후반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학교는 아이들로 가득 차 약자하고 번잡한 일상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아이들 웃음
소리와 노는
모습으로 꽉 채워져 있었다.
교사로서의 삶 역시
버겁고 번잡한 시기
였다. 1500명
가까이 되는 전교
생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는 건 불가능하고, 같은 학년 학생들도 수업받지 않는 아이들은 생판 낯설었고 심지어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생활지도가 쉽지 않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속사정을 살펴챙기는 데 어려움이 컸다. 무엇보다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하는 학생이 너무 많다 보니 개별적으로 학습과 생활지도 진로 설계 등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기 쉽지 않았다.
출생률 감소가 본격화되던 2000년대 이후에는 학생 수 감소로 과밀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적정규모의 학급과 학생 수에 균접해졌다. 이 무렵 교육활동에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아이들이 단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의 주체로서 각각의 개성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성장하게 되었고, 교사들도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에 다양한 선진 방식들을 도입 적용하며 변화에 적응하게 된 것이다.

2019년 동암중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도 20명 내외, 학년당 전체 학급수도 5학급 내외인 아담하고 작은 학교였다. 동암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며 학생, 교사, 학부모

3주체가 친밀감과 신뢰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을 함께한 경험은 나와 구성원 모두에게 이상적인 학교의 규모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교직원 간의 관계의 밀도,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 학부모 간의 유대와 학교에 대한 지원 등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고 학교 비전을 함께 세우며 지켜나가는 활동을 하기에 적절한 규모의 학교였다.

학교 자체의 가치에 최대한 다가가기 위해 각 주체가 존중, 협업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비길 바 없이 소중한 경험이었다. 작은 학교이기에 더 행복하고 만족도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었다.

점점 작아지는 학교

그러나 출생률 저하의 직격탄은 학생 수 급감으로 이어졌고 불과 몇 년 사이에 학급수가 서너 개씩 줄어 교사 수급과 적정 학생 수 확보 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가 사는 인천은 전체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 추이가 완만한 편이지만 신도시 솔림 현상이 심각한 문제였다. 택지개발로 생겨난 신도시는 과밀학급에다 초대형 학교가 되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반대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학생 수 확보와 유지가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게 된 것이다.

동암중학교 역시 한때 30학급 1500여 명의 학생으로 가득 차던 학교가 불과 25년 만에 15학급으로 줄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학생 수와 학급수 감소를 기회삼아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 면에서 최적의 학교로 만들었다. 공동체 모두가 빛나는 협업과 노력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학력 인구의 감소 추세를 보면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려는 이내 현실이 되었다. 2020년 전체 15학급이던 동암중학교는 2021년 14학급으로 줄었고, 입학생의 수는 60~70명으로 감소하였다. 학년당 4학급으로 줄어들자 교과 중심의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다.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는 전공교사가 감원되고 대다수 교사들이 다학년 교과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수업과 생활지도의 부담이 커졌고, 교직원의 감소가 학교 업무의 과중을 불러오는 등 다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담임교사가 교과 지도를 전담하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등교육은 전공교사 확보가 안 되면 교육과정 운영상의 파행을 피할 수 없다. 너무 작은 학교라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피해로 남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졌고 인근의 학교와 통합을 하거나 폐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을 절감하게 되었다.



공감

공동체가 함께 그려가는 학교의 미래

동암중학교는 학교의 미래를 고민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부평구의 구석진 곳에 위치하여 학생 배정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거기에 학령 인구 감소까지 겹치자 이를 뛰어넘을 묘책이 절실했으다. 구성원 모두 학교를 살펴보자는 의지에 공감했고 신입생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논의는 자연스럽게 단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제가 수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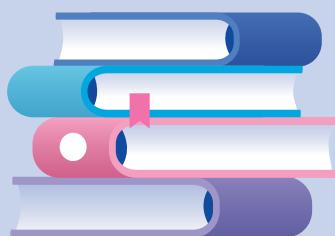
부평구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된 십정동에서 인천형 혁신학교 첫 출발부터 함께한 동암중학교는 구성원 모두가 주도적으로 미래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민주적 절차를 소중히 여기는 학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공학 전환의 필요성과 우려되는 문제점, 그럼에도 동암중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3주체가 의견을 나누고 공동체 전체 토론회를 가졌다.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생활교육의 어려움부터 학교의 전통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 등 반대의 이유도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구성원 각각이 생각하는 반대 이유로는 폐교 위기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의 운명을 공동체 스스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합의 속에 공학 전환 추진의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 3주체 협의회 장면



행정팀은 동암중학교에 진학하는 인근 초등학교에 공학 전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전환 절차를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교무팀은 학생 자치회와 전환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학교 홍보 준비를 하였다. 학부모회에서도 처음 반대했던 학부모까지 힘을 모아 학교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학교를 응원하고 주변 마을 공동체에 학교의 자랑거리를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교육청에 학교 의사를 전달하였을 땐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반대 민원을 우려

| 공학전환후 수업장면



| 공학전환후 목공수업장면





| 공학전환후 음악수업장면



| 공학전환후 체육대회 장면

하였다. 그러나 학교의 주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풀어가는 일임을 강조하였고, 교육청에서도 신년도 진학 희망 조사에서 공학지원 학생이 확보되면 승인하겠다는 약속을 주었다. 학생 자치회에서도 학교별 홍보계획을 세워 주변 초등학교를 설득해 나갔다.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별 학생 수 불균형에 고민이 깊었던 차에 동암중학교의 노력을 응원하고 화장실과 탈의실 등 학교 시설 지원을 위해 협업해 주었다. 마침내 교육청에서 2022년 신입생부터 공학전환을 승인하게 되었다. 인천시교육청 최초의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의 사례가 된 것이다.

2022년 3월 드디어 여학생이 동암중학교 교문에 들어서게 되었다. 개교 40여 년 만이다. 2021학년도 신입생은 64명이었으나, 2022학년도 신입생은 120명으로 56명이나 증가하였고, 학급수도 2021학년 1학년 4학급에서 2022학년도 1학년 6학급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교직원들이 인식하는 적정규모의 학교가 된 것이다. 교육청에서 우려하던 반대민원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공동체의 미래는 구성원 스스로

동암중학교의 선행사례를 참고하여 2023년 부일여자중학교가 공학전환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 동수중학교로 개명하는데 무리 없이 성공하였다. 동암중학교와 동수중학교의 공학전환은 학생 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이지만,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는 못한다.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학교 통폐합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속도감이 멀미가 날 정도로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는 심각하다. 근래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학교가 폐교되었다는 기사가 현실을 실감하게 했다.

인천의 원도심에 있는 중학교들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근접지역에 6~7개의 중학교가 몰려있어서 학년당 4학급의 벽도 허물어질 판이다. 초등학교도 입학생이 20~30명이 허다하고, 고등학교도 학년당 7학급의 벽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원도심 학교의 통

폐합이 절박해지고 있는데 그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지역은 학교 신설이 어려워 초과밀 학교로 고통받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수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 신설과 통폐합을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는 일은 쉽지 않은 눈치다. 민원과 내부갈등의 문제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다. 학생 수 감소를 예상하고 수용계획과 배정계획을 마련해야 하지만, 구성원들의 강력한 민원을 원만하게 풀지 않으면 행정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인구 급감과 급증으로 인한 교육환경 조성의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가려면 원도심의 밀집된 학교들을 이전 배치하는 한편 학교 간 통합안을 동시에 논의하고 최후에 폐교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전 배치든 통합이든 또 다른 대안으로서 거점학교나 초중 통합학교 등 학교의 운명을 바꿔가는 일은 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안 없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일 또한 구성원 간의 소통과 토론으로 풀어갈 일이 이제 3자나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풀어줄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10~20년 이상은 내다보는 교육당국의 학생 배치계획 등을 공유하고 해결의 방안들을 해당학교나 해당 지역의 구성원들이 논의하며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적극행정이기도 하고 당위이기도 하다.

학생 수 감소의 심각함을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지금,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가르치고 키워나가기 위해 적정 규모의 학교를 미리 준비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좋은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삶을 긍정적으로 영위하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누리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준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는 자연스럽게 극복될 것이다.



학교돋보기



제물포중학교는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1981년도에 개교하였다. 현재 교육균형발전교로 지정되었고 소프트웨어 AI 교육혁신지구 소속교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환경인 시설이나 주변 인프라가 열악하다 보니 오롯이 다양한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경제적, 문화적 균형 잡힌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 지역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완화)하고자 교직원 모두가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그러던 중 2023학년도 디지털 선도학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 환경 즉, 생성형 AI 나 다양한 에듀테크, 디지털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적, 사회적 배경지식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봄으로써 지식 자산의 격차를 줄여가며 학생들 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디지털 선도학교의 출발은 지금 현재 모든 교사들의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해 의기소침해진 교육 활동들을 다시 현장에서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바꾸어 보고자 하는 요구와 학생들 개개인에게 1인 1노트북이 보급되어 이를 활용한 교수학습 설계에 대한 고민,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될 때 그에 따른 예산 필요라는 문제 인식과 함께 맞물려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는 현재에 안주하는 교사가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대응하는 학생을 만들고자 하는 교원들의 결심이 뒷받침 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였다. 교사 자체도 코로나로 인해 격리되고 소통이 단절되는 상황에 오래 노출되다 보니 나의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것이 불편하거나 발전, 변화에 지친 분위기도 있었다. 그러나 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열정과 그것을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교내형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는 교과별 수업 나눔을 통해 혼자서 감당해야 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혁신임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깨달아 가고 점점 한마음이 되어져 갔다. 교사가 먼저 교수 학습 설계 과정에서 느낀 몰입의 경험, 교수 성공의 경험이 쌓여 지금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가게 된 것이다. 이는 학습자의 단 한번의 학습 몰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연구학교

오성경 제물포중학교 연구부장

입, 작은 학습 성공이 쌓여 학습의 동기 부여가 되는 과정과 같았다. 교사가 학습 성공의 경험을 먼저 하다 보니 더더욱 아이들과 행복한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이것이 공동체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2023학년도 디지털 선도학교의 핵심 키워드는 ‘시도’, 2024학년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구학교의 키워드는 ‘적용’이다. 2023년도와 2024년도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구학교의 큰 두 줄기는 디지털 교과서의 전신인 AI 코스웨어¹⁾를 수학, 영어, 정보 교과 수업에 적용하여 교수 학습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각 교과에서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과의 교수 학습에 접목하는 디지털 교수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나뉜다. 더 나아가 24학년도에는 각 교과 수업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하고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에듀테크 및 디지털 자원을 도구로 활용하여 디지털 시민으로써 활용 및 협업 능력과 책임, 윤리까지 디지털 시민성을 자연스럽게 함양하고 학습자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율 조절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학습자 주도성에 초점을 맞춰 더 적용 범위를 확장하였다.

AI코스웨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양한 업체들 중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야했고 그려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선도학교의 운영 방향을 중심으로 과제, 우리 학교 환경, 학습자의 상태를 분석하여 각 교과에서 다양한 에듀테크와 AI코스웨어를 선택하였다.

2023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과제	2024학년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구학교 연구 과제
과제 1 교내·외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역량 강화	과제 1 AI 기반 코스웨어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개발 및 학습 몰입도 효과분석
과제 2 AI 코스웨어 교육과정 운영, 교사 역할 변화 선도	과제 2 디지털 기기의 생산적 활용 및 자율 조절력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 개발
과제 3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과제 3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전환 (수업 준비와 피드백의 변화, 교사의 역할 변화)
과제 4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1) 코스웨어란 교육과정을 뜻하는 'course'와 'software'의 합성어로 교육 내용과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 목적의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학습 전 과정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과제를 제공한다.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방향

- 학생의 데이터 수집, 분석, 진단한 맞춤형 교육 지향
- 개인 학습 속도, 수준별 교육을 통한 깊이 있는 학습 제공
- 비판적인 태도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 학습 전 과정에 대한 자기 주도적인 태도, 지식의 재구성, 구조화 체계 훈련

AI코스웨어를 활용한 교수 학습 상황은 단순히 문제풀이만 반복 복습 모형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영어과 경우 수업을 들어가기 전 해당 수업의 단어나, 문장 구조, 문법들을 익혀 조금 더 학습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수학과는 각자가 어려운 문제를 단 한번만 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공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학습 성공을 이끌어내고 있다. 아이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 할 수 있어 아이들이 숙제를 내주지 않았는데도 집에서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학습을 한다는 아이들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또한 AI 코스웨어는 초등부터 고등까지 다양한 학교급의 교과서와 과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준이 모두 다른 기초 학력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 되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수 학습 설계는 정보·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문제해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의사소통과 협업, 디지털 콘텐츠 생성, 디지털 시민의식 5가지의 디지털 시민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각 교과의 교수 학습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학습 상황이 기존에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습 방법에서 새로운 교육방식으로의 변화가 아닌 교과 수업을 통해 지식 속에 사고 체계, 구조화된 시스템을 파악하고 이 지식을 둘러싼 맥락과, 또 다른 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며 구체적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 등 교과내의 적합한 실천적 탐구 방법을 선정하여 학습자가 배운 지식을 토대로 자신만의 지식으로 구성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때 학습과정에서 디지털 환경을 연계하여 디지털 활용 및 협업 환경을 제공함으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도록 하였다. 전 교과에서 이러한 교수 학습을 적용하며 아이들에게 단순 각 교과의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습 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앱 확인
② 개념 속에 있는 사고 체계, 시스템, 구조 파악
③ 관련성 탐색 (1. 맥락 2. 개념들 간)
④ 탐구 결과인 개념 일반화 하기
⑤ 새로운 전이 환경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된 지식 표현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 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를 함양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디지털 시민성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성 함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디지털 교육이 아닌 교육 현장에서 현실 접근이 가능한 교과안에 스며든 디지털

기기의 생산적 활용 및 자율 조율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디지털 환경을 적용하기 위한 수업을 설계하기보다는 교사 개개인이 기존의 수업에서 어떤 점을 생성형 AI나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먼저 연구함으로 부담보다는 시도와 즐거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에듀테크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다보니 아이들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도, 참여도, 몰입도가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눈으로 바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사회 현상으로 인해 불확실성, 가변성, 복잡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과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등장이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게끔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결정 하며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질로 돌아가 다양한 교과에서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사실들을 실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문제와 현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관점을 습득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교육에서 디지털은 교육환경의 도구적 존재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어떤 도구를 활용하느냐 보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듯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있어서는 교사의 교수 학습에 대한 전문성은 더욱 강조 될 것이다.

2023 디지털 선도학교 및 2024학년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제물포중학교는 전달 위주의 창의적 체험 활동이 아닌 증강 현실이나 디지털 환경 속에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체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류 학습지나 지면에 발표 자료를 만들기 보다는 공동 작업이 가능한 웹을 통해 모둠 활동과 발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 형태가 바뀌었다. 형태는 바뀌었으나 본질은 그대로인 우리 교육이 디지털 환경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달길 바란다.



학교돋보기

백년의 역사 속에서 인천교육의 천년을 준비하다

근대교육사 재정립으로 인천교육의 뿌리찾기

원미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주무관

인천교육의 뿌리를 찾는 일

인천교육 역사 바로 세우기

- 인천 100년학교 22교 중 2023년 6교에 대한 연구결과 -



2023년에는 인천창영초(11년), 길상초(14년), 하점초(15년), 서도초(28년)의 개교년도를 앞당기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교의 회복 뿐 아니라 인천이 이미 조선시대부터 자주적 근대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고종의 칙령으로 인천 부공립소학교 교사 ‘변영대’ 임명사함이 기록된 관보(1896년, 창영초), 사립 진명학교(1906년, 길상초)를 졸업했다는 졸업생의 기록을 찾아내어 보통학교령(1906년)에 따라 설립된 학교가 근대 교육의 최초라던 기준의 연혁은 일제가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말살했던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친 인천의 근대교육 자료를 찾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문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학자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해당지 역과 학교를 직접 방문 조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은 우리나라에서 근대 문물을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받아들인 의미있는 곳입니다.

근대화의 급물살과 함께 인천은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열정과 역사는 현재도 우리 학생들에게 오롯이 담겨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교육청은 인천교육의 역사적 가치를 돌아보자는 의미를 담아 지난 2023년부터 인천교육 역사바로 세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은 근대교육 시기였던 100년 이전으로 돌아가, 그 당시 학교의 연혁을 재조사하여 유서깊은 인천교육의 역사를 확인하고 이를 인정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6개교의 사업을 마치고, 2024년에는 16개교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官報	官報
假任及辭令	假任及辭令
任職狀	任職狀
委任狀	委任狀
辭令	辭令
第 一百三十號	第 一百三十號
書	書

길상초[동아일보기사]

창영초[교사발령 관보]

生	惟一來大會慶祝事	年	1906年
◇ 真	慶祝事	月	六月
眞說	慶祝事	日	廿二日
明	慶祝事	地	大正五年六月廿二日
	慶祝事	主	大正五年六月廿二日

하점초 [한민족독립운동사]

또한 본 사업의 결과를 의미있게 남기고자 인천 관내 100년이상 학교를 ‘인천교육 100년학교’로 브랜드화하고, 현판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인천교육 100년학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랑스러운 인천교육의 역사를 증명해나갈 계획입니다.



인천교육 100년학교 기념식 포스터



100년 레터링의 의미

지난 5월, ‘인천교육 100년학교’ 기념식이 인천창영초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창영초는 인천 3. 1.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근현대사의 의미있는 공간으로 ‘인천교육 역사 바로세우기’ 사업을 통해 11년의 개교년도를 앞당겨 인천최초, 전국 두 번째로 개교한 공립초등학교로서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기념식은 역사회복의 의미를 담아 격조있고 감동적인 화합의 장이었으며, 학생, 학부모, 동문은 물론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되돌아보니, 학교 동문은 물론 강화 교육사 연구회와 인천창영초 개교역사 학술심포지움 등 학교 역사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담아, 민·관이 하나가 되어 인천교육역사를 바로 세운 점 역시 의미있었습니다.

‘인천교육 역사 바로세우기’ 사업은 일제강점기 전후로 단절된 학교 역사를 회복하고 인천교육의 뿌리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본 사업이 잊어버린 역사를 찾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인천교육의 100년을 되짚어 보고, 향후 천년을 준비하며 인천교육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에도 16교 대상으로 연구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올바른 학교 역사를 찾는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디자인

-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키컬러를 100에 반영
- 과거의 100년과 미래 지향적인 연속성과 영원성을 표현하기 위해 멀티라인 레터링 디자인

스토리

- 2024년 인천교육 역점정책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를 위한 첫걸음이 인천의 100년학교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에 시작합니다.
- 과거 100년을 살펴봄이 인천 천년(1000년) 교육의 나아감이 됩니다.



창영초 개교역사 심포지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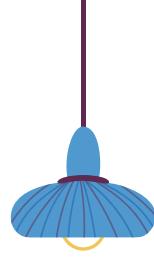


강화교육사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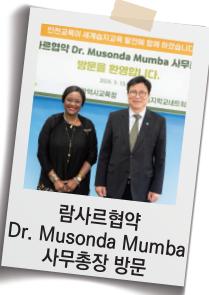


인천교육 100년 학교 기념식





포토 교육청



읽~궁금해요

질문1 읽걷쓰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읽걷쓰는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이에요. **읽걷쓰를 통해서 삶이라는 텍스트를 즐겁게 읽고,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관찰하고 경험하여, 다양한 삶의 장면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질문2 읽걷쓰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읽걷쓰는 읽기, 걷기, 쓰기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갖는 의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읽걷쓰는 이 세 가지 행동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이고 섞이는 **통합된 배움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읽고 걷고 써도 되지만, 쓰고 걷고 읽어도 되고, 걷고 쓰고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삶의 문제와 질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공부하고 경험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질문3 읽걷쓰의 걷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걷기는 읽걷쓰에서 읽기와 쓰기를 견인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직접 걸으면서 앎과 삶을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넓게 보면 **걷기는 우리가 직접 현상, 문제, 삶에 가까이 다가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걷기를 통해 사회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

질문4 읽기, 걷기, 쓰기를 어떻게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읽기, 걷기, 쓰기를 각각 실천해도 되지만 이 세 가지를 상황과 목적에 맞게 엮어서 몸과 마음으로 옮겨 보는 것이 더욱 좋아요. 특히 읽기와 쓰기는 함께 실천하는게 좋아요. 배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배워야 해요. 읽어서 배운 것을 자신의 말로 쓰거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더 잘 쓰기 위해 읽는 것이지요. 이처럼 읽기, 걷기, 쓰기가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일상의 삶 전체가 배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자신만의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속담이 있듯 힘들 때 위로가 되거나 삶에 힘이 되는 반려책을 정해 보는 것도 좋아요. 책 읽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걷기, 하루 3줄 쓰기, 일기 쓰기 등 작은 행동으로 읽걷쓰를 실천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실천이 습관이 되면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질문5 읽걷쓰를 잘 실천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북유럽은 성탄절에 책을 선물하는 나라이자 인구의 10%가 책을 쓰는 나라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75%가 한 개 이상의 학습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30만 저자가 나오고, 책을 읽고 쓰는 일상의 삶 전체가 배움이 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요**.



~일상~
기반 올바로 경대로 세계로



인천광역시교육청